

기조 연설

남북한 언어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안

권재일 || 서울대

남북한 언어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안

권재일 (서울대학교)

1. 머리말

광복 70주년을 맞이한다. 한반도의 광복은 바로 분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분단 70년 동안에 여러 영역에서 남북한 간에 변화가 있었다. 언어문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남북한 사이에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다른 어문규범이 쓰였다. 또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확산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방언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서로 다른 어휘와 어문규범이 사용되어 이것이 고착된다면 장차 남북 통일 이후의 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방언은 그 방언을 쓰는 지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방언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정서와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언어문화와 관련한 이 두 문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첫째는 언어의 달라짐을 극복하는 것이다. 광복 이후에 다음과 같이 남북한의 어휘가 달라졌다. 사회 제도의 차이에서 ‘인민, 동무, 아바이’ 등의 의미와 사용이 달라졌다. 또 북한이 방언을 문화어로 받아들여 달라진 경우도 있고(예: 가마치←누룽지, 오레미←올케, 녹다←혈하다 등), 서로 다르게 외래어를 표기한 경우도 있다(예: 백신(남한말)-약쥘(북한말), 마이너스-미누스, 컴퓨터-콤포터, 로켓-로케트, 베트남-월남). 이와 같은 남북한 언어 차이는 지금의 남북 교류는 물론 앞으로의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반드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간 남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차원에

서 이러한 언어 차이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둘째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역 방언을 보전하는 것이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그래서 각 지역의 방언은 이를 사용해 온 사람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무형 문화재이다. 우리가 지역 방언의 가치를 높이 받들고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늘 발표에서는 남북한 언어문화와 관련한 두 과제에 대한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남북한이 노력해 온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전개할 언어 통합의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통일 이후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¹⁾

2. 남북한의 언어 차이

2.1. 개관

먼저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남한말과 북한말의 차이가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일까? 그렇지 않다. 남북한의 언어 구조는 같고, 얼마간의 어휘 차이가 있을 정도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다음 글은 2001년 중국 베이징에서 국립국어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대표인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문영호 소장이 발표한 말을 옮긴 것이다. 보다시피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현 시기 언어 분야에서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민족어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지켜나가는 근본 원칙으로 될 뿐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높이고 북남 사이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는 기본 방도로 됩니다. 우리 말과 글의 민족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언어

1) 이 발표문의 자료와 논지는 발표자의 앞선 논저인 권재일(2006, 2014, 2015)에서 인용한 것이다.

수단은 우리 겨레가 오랜 옛날부터 창조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어 유산을 발굴 정리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척시켜 나감으로써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언어의 달라짐에 대한 개념을 남기심(2002)에서 인용해 보겠다. 이 글 역시 위 학술회의에서 남한 대표로 기초 연설한 내용이다.

“예부터 남이나 북에 여러 지역 방언이 있었다. 이런 방언적 차이를 이질화라 할 수 있는가? 동일한 언어가 지역 간의 교류가 끊임으로써 이질화하여 분화되기에 이르는 것은, 음운 체계의 변화, 문법의 변화로 인하여 어휘의 발음 구조가 달라지고 문장 구성 방법이 달라지며, 어휘 체계도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남북 간에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될 정도의 심각한 이질화는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남북 간의 언어 사이에는 심각한 음운 체계상의 변화도 없고, 문법상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언어 구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 언어의 달라짐은 어휘 면에서 부분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음운

자음과 모음을 포함한 음운 체계에 있어서 남북한 언어를 대조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원래 음운 체계란 짧은 기간에 쉽사리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한 언어 다 같이 19 자음과 10 단모음을 가진다. 다만, 단모음 가운데 ‘외, 위’를 남한의 표준발음법에서 이중모음으로도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비해, 북한 발음법에서는 ‘위’를 어떤 환경에서나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점이 서로 다르다.

남북한 언어의 음운변동 현상도 실제 차이가 없지만, 두음법칙에 있어서는 양상이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말에 있어서는 광복 후 두음법칙 현상을 없애는 것을 규범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말에서도 외래어 수용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발음법 규정에 따르면, 한자어는 음절마다 한자어의 현대 소리에 따라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ㄹ’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예: 로동), ‘ㄴ’은 모든 모음 앞

에서 ‘ㄴ’으로(예: 녀자) 발음한다.

‘ㄷ’과 ‘ㅌ’의 구개음화 현상은 남북한 언어 모두에 나타난다. 과거 평안방언은 실제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예: 던깃불, 동다), 현재 북한말에서는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전깃불, 좋다’로 발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의 문화어가 평양말을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평안방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표준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언어의 음운 차이는 광복 후 북한의 어문규범 개정의 결과인 두음법칙 현상으로 귀착된다.

2.3. 문법

남북한 언어의 문법 구조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규범문법 기술에 관한 한,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품사 분류를 보면, 북한 문법은 다음과 같이 8개의 품사를 두고 있다.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남한 문법과의 차이점은 ‘조사’가 빠진 것이다. 조사는 체언에 참여하는 문법형태로 용언에 참여하는 문법형태(남한의 ‘어미’)처럼 품사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묶어 ‘토’라는 범주를 설정한다. 북한 문법에서 토의 범위를 처음에는 격조사와 보조조사로 한정하였으나 이어서 용언의 어미 및 사동과 피동의 접미사까지 확대시켰다.

2.4. 어휘

북한은 1949년부터 한글전용이 국가정책으로 실시된 이래 언어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법, 표준어의 보급과 함께 어휘의 대대적인 정화인 말다듬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바탕에서 1966년 김일성 교시에 의해 ‘문화어’를 제정하였다. 문화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문화어 제정으로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남북한은 현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전혀 다른 체제이다. 이 때문에 이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어휘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고, 같은 어휘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문화어에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많

다. 정치 분야의 ‘수령, 교시, 주체, 선동사업, 선군사상²⁾, 원쑤, 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 혁명가정’, 경제 분야의 ‘로동영웅운동, 공훈리발사, 밥공장, 녀성보잡이’, 문화 분야의 ‘공훈배우, 인민배우, 창작과제’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어휘 차이라기보다는 이념과 제도 차이가 어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남북한에서 형태의 차이는 없으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어휘들도 많다. 정치성이 강한 어휘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동무’의 경우, 남한 사전의 뜻풀이는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인데 비해, 북한 사전의 뜻풀이는 ‘같이 어울리어 사귀는 사람’이라는 뜻풀이에 앞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이라 풀이한다. ‘아버이’ 역시 남한 사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일컫는 말’에 대하여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 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분을 끝없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높이며 이르는 말’로 북한 사전은 뜻풀이한다. 남북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가 어휘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³⁾

이밖에 북한 방언의 상당수가 문화어에 포함되어 ‘채소→남새, 거위→계사니, 옥수수→강냉이’처럼 남한의 표준어와 달라진 어휘가 있는가 하면⁴⁾, 한자어 어휘가 토박이말로 다듬어져서 달라진 어휘도 ‘객토→흙갈이, 표백→바래기, 좌익수→왼쪽공격수’처럼 상당하다. ‘標識: 표지(남한)-표식(북한), 歪曲: 왜곡-외곡, 誤謬: 오류-오유’처럼 동일한 한자어를 남북한이 다르게 읽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휘 차이를 북한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한말에는 광복 이후 수많은 외래어가 쓰이고 있어서 남북한 어휘가 차이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지나친 외래어 사용이기

2) ‘선군사상’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 북한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군사 우위의 국가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말이다.

3) 의미가 달라진 몇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선동’의 경우,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나 북한에서는 정책 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부추기고 호소한다는 뜻으로 쓴다. ‘바쁘다’의 경우, 일이 많거나 급히 해야 할 일로 겨를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힘에 부치거나 참기 어렵다, 매우 딱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보기 바쁘다, 말하기 바쁘다’는 보거나 말하는 것이 매우 딱하다란 뜻이다. ‘시끄럽다’는 성가시도록 말쑤이나 까탈이 많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번거롭거나 번잡스러워 귀찮다라는 뜻으로도 쓴다.

4) 몇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다. [문화어]←[표준어] 닭알←달걀, 망돌←맷돌, 발쪽←족발, 상기←아직, 소래←대야, 아즈럽다←애처롭다, 어방←어렵, 인차←곧, 한뉘←한평생 등

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는 바로 남한말에 지나치게 많이 쓰이는 무분별한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일이라 하겠다.

2.5. 화법

남북한 언어 가운데는 그 뜻은 통하나,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민현식 2010, 신명순 외 2012, 양수경·권순희 2008 참조).

(1) 남한에서 낫선 북한말 표현

아이 뭐 가지가지로 많이 하십니다.

일 없습니다.

서울에는 가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인사, 감사, 칭찬, 사과, 거절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자주 보고된 바 있다. 다음 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화행 특성인데, 이를 북한말의 화행 특성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2) a. 인사 표현

남한 사람이 ‘술 한 잔 해요, 밥 한번 먹자’ 등의 인사말을 곧이듣고 연락을 기다림. ‘나중에 연락할게’와 같은 완곡한 거절을 알아듣지 못함.

b. 거절 표현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거절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냄.

c. 사과 표현

사과 표현의 경우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함.

d. 감사, 칭찬 표현

감사와 칭찬에 대한 표현을 어색해 함. 칭찬받은 경우에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난처하다고 느낌.

2.6. 어문규범

다음 두 문장의 차이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라는 띄어쓰기 차이가 있다. ‘아는 것, 중요한 것’과 ‘아는것, 중요한것’도 띄어쓰기 차이이다. ‘역사’와 ‘력사’의 차이, ‘올바르게’와 ‘옳바르게’의 차이도 있다.

- (3) a. 남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b. 북한: 우리 나라 역사를 옳바르게 아는것이 중요한것이다.

남한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광복 후에도 국가의 공인된 맞춤법으로 삼고 계속 사용해 오다가, 이를 수정·보완한 새로운 ‘한글맞춤법’을 198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1954년에 ‘조선어철자법’을 정해 사용하다가, 다시 1966년에 ‘조선말규범집’으로 바꾸고 그 이후 수정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의 표기법은 이와 같이 서로 교류 없이 각각 시행해 온 결과 지금은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어문규범 중, 사이시옷 차이가 가장 크다(다음 (4) 참조). 그리고 두음법칙 적용에서는 (5)와 같이 단일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북한에 차이가 있다.

- (4) a. 남한: 나뭇잎, 냇가, 낫병, 장맛비, 북엇국
- b. 북한: 나무잎, 내가, 귀병, 장마비, 북어국
- (5) a. 남한: 역사, 여성, 노동, 낙원
- b. 북한: 력사, 녀성, 로동, 락원

3. 남북한의 어휘 다듬기 활동

3.1. 개관

광복 후 남북한은 각각 어휘 다듬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에 스며든 일본말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첫째 과제였으며,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다듬는 것이 둘째 과제였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외래어를 쉬운 토박이말이나 한자어로 바꾸는 것도 어휘 다듬기의 주요 과제였다. 물론 이와 같은 남북한이 각각 수행해 온 활동은 앞으로 있을 남북한의 어휘 통합을 염두에 둔 활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활동의 결과물은 장차 남북한 어휘 통합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어휘 다듬기 활동을 주로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전개하여 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휘 다듬기 활동은 민간단체인 한글학회가 주로 수행해 오다가, 1990년 정부에 문화부(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고 거기에 국립국어연구원(지금의 국립국어원)이 설치되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가져간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한은 느슨하게 어휘 다듬기 활동을 전개한 것에 비해 북한은 정부기관의 강력한 의지로 어휘 다듬기 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어휘를 보급하는 데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3.2. 남한의 어휘 다듬기 활동

한글학회는 광복 전부터 우리말에 대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광복이 되자 조선 어학회 수난 사건으로 함흥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온 회원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회원들이 함께 국어 교과서를 편찬하고, 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말 도로 찾기’를 위한 일본어와 우리말의 대조표를 만들어 강습회와 강연회를 열어 계몽 활동을 펼쳤다.

“한글” 제98호(1946년 11월)에 실린 ‘나라 말을 깨끗이 하자 (1)’과 제100호(1947년 5월)에 실린 ‘나라 말을 깨끗이 하자 (2)’에 나타난 방침에 따라 일본어 578 어휘를 우리말로 다듬어 제시하면서 되찾고자 하였다. “한글”에 실린 네 가지 방침과 거기에 따

라 다듬어 제시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이 있는데 일본말을 쓰는 것은 일본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쓴다(예: 시아게→마무리/끝손질, 기지→감). 둘째, 우리말이 없고 일본말을 쓰는 것은 우리 옛말에라도 찾아보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를 끌어다가 그 뜻을 새로 작성하고 쓰기로 한다(예: 강키리→통오림갈, 이지메루→들볶다). 셋째, 옛말도 찾아낼 수 없는 말이 일본말로 씌어 온 것은 다른 말에서 비슷한 것을 얻어가지고 새말을 만들어 그 뜻을 작성하고 쓰기로 한다(예: 벤토→도시락, 사카다치→물구나무서기). 넷째, 한자로 된 일본말은 일본식 한자어를 버리고 우리가 전부터 써오던 식의 한자어를 쓰기로 한다(우케쓰게[受付]→접수, 가이단[階段]→층층대).

그 이후에도 여러 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학문, 실무, 생활 등 각 분야 어휘를 쉽게 고쳤다. 그 결과를 모아 1967년 1월에 “쉬운말 사전”을 펴냈다. 한글학회의 이러한 노력과 활동이 없었다면, 짧은 기간 안에 일본어 잔재를 몰아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무수히 몰려오는 외래어 홍수를 막아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말의 고유성을 지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남북한 언어의 달라짐도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시작한 정부기관의 국어 순화 활동은 국립국어연구원이 출발하면서 본격화되어 그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순화어를 제정하여 보급하였다. 국어 순화는 국어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투 용어, 무분별하게 들어와 남용되는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잘못 표기된 외래어를 대상으로 삼았다. 생활 외래어를 비롯하여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매우 다양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은 이렇게 순화한 말을 매년 “국어 순화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발간 권수가 12권에 이르렀고, 대상 분야는 40여 개, 순화 어휘는 2만 1천여 개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활동은 제시하는 순화어에 비해 언어생활에 정착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일반 대중이 직접 순화어를 제안하고 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2004년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말터’를 개설하였으며,⁵⁾ 더 나아가서 2011년부터는 국민이 제안한 순화어의 타당성과 소통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여 순화어의 질을 높이고자 말다듬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⁶⁾

5) 지금까지 300여 어휘를 순화하였으며 이 가운데 ‘리플, 웰빙, 파이팅, 네티즌, 스크린도어’를 다듬은 ‘댓글, 참살이, 아자, 누리꾼, 안전문’ 등은 정착되어 현재 널리 쓰이고 있다.

6) 맨 먼저 트위터 용어인 ‘팔로잉, 팔로어’를 ‘따름벗, 딸림벗’으로 다듬었다. 그 이후 ‘벤치마킹’을 ‘본따르기로’, ‘워터마크’를 ‘식별무늬’ 등으로 다듬었다.

3.3. 북한의 어휘 다듬기 활동

북한의 경우 어휘 다듬기 활동은 전적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추진되었다. 북한에서 국어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기관에는 과거에는 조선어문연구회, 과학원 어문학연구소, 학술용어사정위원회 등이 있었고, 현재는 조선어문연구회, 과학원 어문학연구소의 뒤를 이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학술용어사정위원회의 뒤를 이은 내각 직속의 국어사정위원회가 있다.

북한의 문화어 말다듬기 활동은 김일성의 두 차례의 교시를 통해 전개되기 시작한다.⁷⁾ 북한에서는 전문용어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말다듬기 대상이 되는 어휘를 파악하여 집체적으로 협의한 다음 국어사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졌다. 이 과정에는 다듬은말 시안에 대한 사회적 심의를 수행하고, 최종 결정된 이후에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1967년부터 해마다 1,500-4,000개 어휘를 배포하였다. 1978년에는 사전 형식의 어휘 4만 개를 실은 “다듬은말뭉침”을 발간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에 1,000여 개의 동식물 어휘들을 다듬어 심의 발표하고 100여 개의 벼, 과일 이름을 다듬어 배포했으며, 수백 개의 광물, 고생물 이름을 배포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1,200여 개의 외래어를 다듬어 심의한 “다듬은 외국말 요리, 식료품 및 공업품이름”을 발표하고, 2,000개에 달하는 컴퓨터 용어를 다듬었다.

말다듬기 과정에서 사회적 심의를 거쳤다고 하였는데, ‘주체적 언어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정치사상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말다듬기 지상 토론을 통해 대중들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말다듬기 지상 토론은, 1966년부터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산하 18개 전문용어 분과위원회에서 말다듬기를 진행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신문, 계간지(“문화어학습”)를 통해 이루어졌다. 해당 전문용어 분과위원회에서 다듬은말 가운데 문제성이 있는 말들을 골라 한 번에 15개 정도씩 신문과 잡지에 내고 독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1966년 7월부터 12월까지 166회의 말다듬기 지상 토론에는 1,590개의 어휘가 토론 대상에 올랐는데 노동자, 지식인, 사무원, 청년 학생, 일반 주민이 참여하였다. 이때 ‘노크’, 축구의 ‘벌축’, 배구나 권투의 ‘타격’을 ‘손기척, 벌차기, 때리기, 치기’ 등으로 다

7) 제1차 교시(1964년),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문화어학습” 1968년 2호). 제2차 교시(1966년),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문화어학습” 1968년 3호)이다. 문화어라는 말은 1966년 제2차 교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듬었다. ‘편람’을 ‘알아보기’, ‘간식’을 ‘새참’으로 다듬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20여 년간 다듬은 한자어와 외래어는 대략 5만여 어휘였다. 그러나 1986년에 이러한 5만여 어휘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였다. 널리 쓰이는 용어 2만5천 어휘만 남기고 절반을 폐기하였다. 그 결과는 1992년에 발간한 “조선말대사전”에 반영하였다. 이때 다듬은말 ‘얼음보숭이’가 사라지고 ‘아이스크림’이 되살아났다.⁸⁾

이상과 같이 북한의 말다듬기 활동은 고유한 토박이말을 지키려는 의지와 의사소통의 편리를 위해 ‘계획’에 따라 어휘 정리를 수행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상 토론을 통하여 언어 사용자와 교감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 ‘말터’를 통해 국립국어원이 언어 사용자와 함께하는 국어 순화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계획적인 사업에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은 5만여 다듬은 어휘 가운데 1986년에 그 절반을 폐기한 데서 알 수 있다. 다듬은말이 지나치게 생소하여 일반 대중들이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언어의 인위적인 개혁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남북한의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

남북한의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통일 이후 언어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휘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어문규범의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간 남한과 북한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의의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남한의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이에 여러 차례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여러 차례 직접 만나 논의

8)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무엇이라 하는지 아느냐’라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얼음보숭이’라 대답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에스키모’라 한다. 북한의 “조선말큰사전”에서 ‘에스키모’를 “소젓, 닭알, 사탕가루, 향료 같은것을 섞어 한데 풀어서 크림 비슷하게 하여 얼음같이 차게 하거나 얼음과자처럼 만든 음식의 하나. 제조기에서 균질화하여 잔이나 종이에 싸거나 종이고뿌에 담아낸다.”라고 풀이한다. 북한에서 외래어 다듬기를 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얼음보숭이’를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 번도 쓰이지는 않았다.

한 어휘 통합의 대표적인 노력이다.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남북한 언어학자 교류의 큰 성과라 평가한다.

4.1.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교류

국립국어연구소는 1996년 중국 창춘에서 열린 언어학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학자들을 처음 만났으며, 2001년 1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이들과 다시 만났다. 이렇게 하여 남북한 언어학자들은 학술 교류 차원에서 남북 언어 국제학술회의를 모두 7차례 개최하였다. 그 첫째 목적은 남북한 언어학자가 직접 교류하여 남북한 언어에 대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었고, 둘째 목적은 남북한 언어 통합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었다. 두 기관이 함께 한 국제학술회의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일곱 차례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제1차] '96 Korean 언어학자 국제학술토론회의 (1996년 8월 5일-7일, 중국 창춘시 북극지춘호텔). 주제: 남북 어문 규범 문제
- [제2차]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2001년 12월 14일-16일, 중국 베이징시 중원호텔).
- [제3차]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2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2003년 11월 5일-9일, 중국 베이징시 21세기호텔). 주제: 민족 고유어의 통일적 발전과 방언 조사 연구
- [제4차]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3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2004년 6월 22일-25일, 중국 베이징시 21세기호텔). 주제: 민족어 유산의 수집 정리와 고유어 체계의 발전
- [제5차] 민족 방언 연구와 조사 및 코퍼스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2004년 12월 20일-25일, 중국 선양시 글로리아플라자호텔).
- [제6차]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5차 남북 국제학술회의 (2005년 12월 12일-15일, 중국 선양시 삼릉중천호텔). 주제: 민족어 어휘 구성의 변화와 통일적 발전
- [제7차]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남북 국제학술회의 (2007년 11월 16일-18일, 중국 옌지시 대주호텔). 주제: 민족어 발전의 현실태와 전망

일곱 차례 학술회의를 통해서 보면,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주제가 중심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어휘 통일에 관한 방안, 언어 자료의 교류와 남북한 공동 말뭉치 구축에 관한 방안, 민족어 보존과 남북한 공동 지역어 조사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회의의 거듭할수록 남북한 언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두 가지 과제, 즉 ‘우리말의 전산화’와 ‘지역어 조사’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우리말 전산화에 대해서는 우리말 어휘 자료를 어떻게 전산화하며 이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것인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 결과 상당량의 북한 언어 자료를 말뭉치로서 확보할 수 있었다. 지역어 조사에 대해서는 남북한 방언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 논의하였다. 공동 조사란 같은 질문지, 같은 장비, 같은 방법으로 남북한 각 지역의 어휘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2004년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방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방언 조사 중심의 남북 학술회의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방언 어휘를 조사하기로 하였지만 북한 사정으로 각 지역별 방언 조사를 실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이의 학술회의는 동력을 잃게 된다. 또한 다음에 살펴볼 2005년부터 새로이 시작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영향도 있었다.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 몇몇도 이에 참여하였지만, 북한에서는 언어학연구소 연구원들이 전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언어학연구소는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보다는 사업 규모가 훨씬 큰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회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4.2. 남북 공동 겨레말큰사전 편찬

“겨레말큰사전”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으로, 분단 이후 남북한에서 달라진 어휘를 뜻풀이에 반영하는 사전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함께 단일 어문규범을 작성하여 편찬하는 사전이며, 기존의 남북한 사전에 수록되지 못했던 지역어 및 문헌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올림말로 수록하는 사전이다.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 남북한이 공통으로 쓰는 말은 우선적으로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북한이 합의하여 단일화하여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실을 대사전이다. 이러한 내용을 2005년 봄 남북한 학자들이 합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해마다 네 차례씩 남북한 학자들이 사전편찬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4.2.1. 일반 어휘 단일화

일반 어휘 단일화는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올림말 선정 과정을 살펴 그간 어휘 단일화의 성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남북한이 서로 다른 형태인데 단일화한 어휘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단일화한 어휘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거북이	거북이	거부기
걸죽하다	걸쭉하다	걸죽하다
널찍하다	널찍하다	널직하다
더욱이	더욱이	더우기
벗어부치다	벗어부치다	벗어붙이다
이빨	이빨	이발
일찍이	일찍이	일찌기

다음 예는 복수 형태를 인정한 몇 예이다. 즉, 남한말에서 ‘아내’, 북한말에서 ‘안해’인 것을 둘 다 받아들이는 예이다.

(7) 복수 표기로 한 어휘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아내/안해	아내	안해
벼씨/벼씨	벼씨	벼씨
햅쌀/햅쌀	햅쌀	햅쌀
달걀/닭알	달걀	닭알
오투기/오투기	오투기	오투기

4.2.2. 외래어 단일화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가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선 ‘ㄱ’ 항에서 양쪽 사전 모두에 올려 있는 외래어를 살펴보면 남북한이 같은 것은 ‘가솔린(gasoline), 가운(gown), gaze(Gaze), 게놈(Genom), 게릴라(guerilla), 고릴라(gorilla), 고무(gomme), 골프(golf), 그리스(grease), 기타(guitar)’ 등 85개이며, 서로 다른 것은 ‘갈륨/갈리움(gallium), 갱/깡(gang), 고딕/고지크(gothic), 그래픽/그라히크(graphic), 카피/꼬삐(copy)’ 등 86개이다. 표기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반반인 셈이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지금까지 거래말큰사전 편찬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한이 차이가 있는 것은 3가지로 나누어 단일안을 마련하였다. 즉, 남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북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그리고 제3의 안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둘 다를 인정하여 복수로 둔 것도 있다. 그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남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나일론	나일론	나이론
디자인	디자인	데자인
마네킹	마네킹	마네킨
매스컴	매스컴	매스콤
벤치	벤치	벤취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마츄어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9) 북한 외래어로 단일화한 것

단일안	남한말	북한말
런닝	러닝	런닝
로봇트	로봇	로보트
본네트	보닛	본네트

색스폰	색소폰	색스폰
알콜	알코올	알콜
잠바	점퍼	잠바
컨닝	커닝	컨닝

(10) 제3의 안으로 단일화한 것

<u>단일안</u>	<u>남한말</u>	<u>북한말</u>
기아	기어	기야
다이알	다이얼	다이얄
리야카	리어카	리아까
메세지	메시지	메쎬지
몽따주	몽타주	몽따쥬

(11) 복수 표기로 한 것

<u>단일안</u>	<u>남한말</u>	<u>북한말</u>
깁런/갈론	깁런	갈론
그래프/그라프	그래프	그라프
라디오/라지오	라디오	라지오
레슬링/레스링	레슬링	레스링
배드민턴/바드민톤	배드민턴	바드민톤
보일러/보이라	보일러	보이라
에너지/에네르기	에너지	에네르기

4.2.3. 어문규범 단일화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어문규범을 단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간 겨레말큰사전 편찬에서 남북한의 어문규범을 단일화하기 위해 의논한 내용을 살펴겠다.

ㄱ ㄲ ㅋ ㆁ ㄷ ㄸ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로 하고, 겹모음 글자의 순서는 'ㄱ ㄲ ㅋ ㆁ ㄷ ㄸ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로 하기로 하였다.

넷째, 종성(받침)에서 겹자음 'ㄱ, ㅃ'의 순서는 북한 순서대로 모든 자음이 끝난 뒤에 두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종성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14) 종성의 배열 순서 합의안

ㄱ ㄲ ㄴ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ㅁ ㅂ ㅃ ㅄ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ㅠ ㅡ ㅣ
 ㅇ ㅁ ㅂ

한편 글자 이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홑자음 'ㄱ, ㄷ, ㅅ'의 이름과 겹자음 'ㄱ, ㅃ, ㅅ, ㅆ'의 이름이다. 남한의 이름은 각각 '기역, 디귿, 시읏', 그리고 '쌍기역' 등이다. 북한의 이름은 각각 '기옥, 디을, 시읏', 그리고 '된기옥' 등이다. 이러한 글자 이름에 대해서는 'ㄱ(기옥), ㄷ(디을), ㅅ(시읏)'으로, 겹자음은 'ㄱ(쌍기옥), ㅃ(쌍디을), ㅅ(쌍비읍), ㅆ(쌍시읏), ㅆ(쌍지읏)'으로 하기로 하였다.

[2] 띄어쓰기

남북한의 띄어쓰기에서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은 일치한다. 현재 이 원칙에 따르면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넓게 잡아 규정한 반면, 남한은 극히 일부에 한해 붙여 쓰도록 하거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남한에서는 1989년에 이전보다는 좀 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 북한에서는 1966년부터 붙여 쓰는 쪽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도 규범에서 일부 띄어 쓰는 쪽으로 수정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붙여 쓰는 쪽으로 바뀌었다.

띄어쓰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존명사, 보조용언, 대명사, 명사 연결체 등의 띄어쓰기이다. 먼저 의존명사 띄어쓰기이다. '것, 바, 줄, 수' 등과 같은 의존명사의 경우, 남

한에서는 ‘갈 바를 알 수 없다’로 북한에서는 ‘갈바를 알수 없다’로 쓴다. 이 문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원칙을 존중하여 ‘갈 바를 알 수 없다’처럼 띄어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한명, 두마리’처럼 붙여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즉, 일반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붙여 쓰는 쪽으로 하였다.

(15) 의존명사 띄어쓰기

남한: 갈 바를 알 수 없다	한 사람, 두 마리
북한: 갈바를 알수 없다	한사람, 두마리
합의: 갈 바를 알 수 없다	한사람, 두마리

다음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도 중요한 논의 과제이다. 남한에서는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 버렸다’처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북한에서는 ‘가고있다, 읽게하였다, 오지않았다, 먹어버렸다’처럼 붙여 쓴다. 이에 대해 보조용언을 띄어 쓰되, 용언에 붙는 토 ‘-어’ 바로 다음에 오는 보조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16)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남한: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 버렸다
북한: 가고있다, 읽게하였다, 오지않았다, 먹어버렸다
합의: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버렸다

다음으로 명사 연결체의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를 원칙으로 하고,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허용한다. 북한에서는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미 단위별로’ 띄어 쓰는 쪽으로 의논하였다. 즉, ‘사범 대학 부속고등학교’로 표기하기로 한 셈이다.

고유명의 경우, 이름과 호는 성에 붙여 써서 ‘김양수, 서화담’으로, 지명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에 붙여 써서 ‘서울시, 평양시’로, 기관·기구·단체 등의 명칭은 의미 단위별로 띄어 써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등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3] 사이시옷

사이시옷 표기에 관해서 남북한이 의견을 모으기란 매우 어렵다. 남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는 사이시옷을 모두 쓰지만,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현격히 다른 두 표기법을 단일화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남북한은 사이시옷 표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방안을 서로 제시하여 몇 차례 의논하고 있다.

현재 남한이 ‘나뭇잎, 냇가, 꺾병, 전셋집, 등교길’로 표기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나무잎, 내가, 귀병, 전세집, 등교길’로 표기한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방법은 남한은 사이시옷 표기의 수를 줄이는 것이고 북한은 표기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여러 차례 제안을 수정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17) 사이시옷에 대한 남한 측의 의견

- a.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별해 순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b. 합성어 앞말이 고유어인 것 중 남과 북의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이 덧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이렇게 하면, ‘나뭇잎, 냇가, 꺾병, 전셋집, 등교길’로 표기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18) 사이시옷에 대한 북한 측의 의견

“조선말대사전”에서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에 한하여 사이시옷이 나는 단어와 나지 않는 단어가 동음이의어의 관계에 있으면 사이시옷이 나는 단어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에 따르면, ‘비바람’과 ‘빗바람’, ‘새별’과 ‘셋별’, 더 나아간다면 ‘내가 냇가로 간다’ 정도에서 사이시옷을 쓰게 된다.

(19) 사이시옷 표기

남 한: 나뭇잎, 냇가, 꺾병, 전세집, 등곶길, 장맛비, 두부국

북 한: 나무잎, 내가, 귀병, 전세집, 등교길, 장마비, 두부국

남제안: 나뭇잎, 냇가, 꺾병, 전세집, 등교길, 장마비, 두부국

북제안: 나무잎, 냇가, 귀병, 전세집, 등교길, 장마비, 두부국

[4] 두음법칙

남북한의 어문규범 단일화 작업에서 아마도 ‘역사’와 ‘력사’, ‘여성’과 ‘녀성’의 표기를 단일화하는, 단어 첫머리의 ㄴ, ㄹ 표기 문제인 두음법칙에 관한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조금씩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의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한과 북한은 두음법칙 표기에 대해 각 측의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양측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음법칙 표기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에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3. 컴퓨터 용어와 체육 용어 단일화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 활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 컴퓨터 관련 용어를 국어로 순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남북한이 한가지이다. 그래서 1990년대에 남북한 컴퓨터 용어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 바 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은 다음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컴퓨터 부호계 한글 자모순 남북한 공동안 연구’와 제2부 ‘컴퓨터 용어 남북 통일안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로 ‘남북 정보처리용어 통일안 ICCKL 합의 초안’이 덧붙여 있다.

홍윤표·진용옥 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국어정보학회·문화체육부.

그동안 남북한이 국제 경기에서 서로 만나면서 남북한의 체육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한의 체육 용어를 단일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이 같은 언어로 만나고 같은 언어로 소통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 용어의 단일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2007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옌벤조선족자치주 옌시에서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대한 결과는 다음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최기호 2008, “남북 체육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어단체연합.

5. 남북한 지역어 조사

각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방언은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방언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2004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지역어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사 사업 초기부터 북한 지역 방언 조사도 함께 계획하여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협력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북한에서도 방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003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학술모임에서 제기된 방언 조사에 대한 의견”

국제고려학회 아시아분회가 조직한⁹⁾ 학술모임에서 남과 북, 해외의 국어학자들은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방언이 최근 급격히 소멸해 가고 있는 데 우려하면서, 방언을 정확

9) 2003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제학술회의는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참여한 회의이고, 실제적인 주관은 국립국어원이었으나, 형식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학술기관이 맡아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베이징대학 조선어문연구소 소장인 이선한 교수가 주선하였는데, 그의 직함은 국제고려학회 아시아분회 분회장이었다. 그래서 형식상 주최 기관이 국제고려학회 아시아분회가 되었다.

히 그리고 빠짐없이 수집하여 보존할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을 같이 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서로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방언 조사를 진행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조사 방법과 학술적 기준을 가지고 방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정별, 언어대상별 조사 원칙과 방법을 토론하였다.

국제고려학회 아시아분회는 방언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언 조사 설비와 수단,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3년 11월 7일

구체적인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리하였다.

1) 조사 자료

1. 전사 자료, 음성 자료, 화상 자료 등 세 가지를 구축한다.
2. 자료의 동질성을 위해 남북이 동일한 기자재(디지털 녹음기-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다. 이를 위해 국제고려학회 아시아분회는 기자재와 조사비를 제공한다.

2) 조사 내용

1. 어휘목록 조사: 조사항목의 내용과 분량은 따로 교환하여 확정한다.
2. 문장 시나리오 조사: 옛 설화 등을 작성하여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조사한다.
3. 자연 발화 조사: 세시풍속, 마을의 이야기 등의 자연 발화를 조사한다.

3) 조사 지점

1. 군 단위를 조사 지점으로 한다.
2. 단계적으로 해외 동포의 방언도 대상으로 삼는다.

4) 조사자와 제보자

1. 조사자는 양측의 연구사로 한다.
2. 제보자는 토박이 방언 사용자로서 고령자로 하되, 방언 조사 일반 원칙에 따른다.

5) 조사 계획

1. 시범 조사(2004년 1월-6월)
2. 본조사(2004년 7월~): 시범 조사 자료 교환 때에 구체적으로 다시 의논한다.

그 이후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남북한에서 함께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방언 조사는 한두 해 진행되다가 여건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북한 여건상 각 지역으로 조사원이 며칠간씩 출장 가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조사 내용 중, 평안북도 구장 지역의 자료는 견본으로 편집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어 조사 사업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지역어 조사 사업으로 미약하나마 2008년까지는 이어졌다. 남한 지역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10년간 조사하여

각 지역마다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남북한이 함께 지역 방언을 조사하여 보존하는 일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방안

남북한 언어 차이를 줄이고 민족어를 통합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의 기반이다. 이제 앞으로 전개할 남북한 언어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1] 남북한 어휘 통합과 어문규범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남북한의 언어정책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학술회의를 통해 교류하면서 주로 어휘 문제에 대해 학술 토론을 이어 왔으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실제로 남북한 어휘와 어문규범 단일화를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기관들로 하여 협의기구를 조직하여, 이론적인 측면은 학술회의의 토론을 거쳐 보완하고, 실질적인 언어 통합 작업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 또는 개인들로 언어 통합 검증단을 구성하여 단일화한 어휘와 어문규범이 일상 언어생활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남북한의 언어정책가, 언어전문가, 언어사용자가 두루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남북한 언어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 통합의 실질적인 방안은 겨레말큰사전의 올림말 선정 기준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의 대표적인 사전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것은 그대로 단일화한 어휘로 삼고, 형태나 의미에서 차이 나는 것은 남북한이 협의를 하여, 1) 남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2) 북한의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3)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4)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공동으로 쓰는 복수 어휘로 선정하는 것이다.

- [3]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어휘에 대해 단일화를 하기 위하여 몇몇 원칙을 정하여 남한의 어휘든, 북한의 어휘든, 제3의 어휘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어휘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려면 형태가 간결해야 한다. 남한에서 북한 어휘를 받아들였을 때나 북한이 남한 어휘를 받아들였을 때, 기존의 어휘에 비해 간결성이 떨어진다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의미 영역이 정확 하면서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4] 남북한 어휘 통합과 어문규범 단일화는 연구 단계에 멈춰서는 안된다. 관련 협의 기구에서 단일화한 어휘와 어문규범은 언어사용자들로 구성된 검증단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후, 실제 남한과 북한에서 함께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단일화한 어휘와 어문규범을 적극 교육하고, 언론은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에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에게는 물론이고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외 교포들에게도 보급해야 할 것이다.
-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언어사용자들이 남북한 언어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일이다. 남북한 언어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관련 기관에서 힘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단일안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종이에 적힌 기록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한때 다듬은말인 ‘얼음보숭이’처럼 묻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모든 언어사용자들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언어 통합은 어느 날 우리 앞에 나타날 국토, 정치, 경제 통일의 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으로,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언어학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재일 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 권재일 2012,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재일 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권재일 2015, 남북한의 어휘 단일화, “광복 70돌맞이 말글정책의 회고와 전망 논문집”(618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pp.185-209, 한글학회.
- 김광수 2004, “남북한 전문용어 비교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문오·전수태 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김선철·김건희 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 김선철 2009, 국립국어원의 북한어 연구 현황에 대하여,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pp.15-23, 국립국어원.
- 김하수 2015, 해방과 분단, 그리고 언어 환경의 변화, “새국어생활” 25-2(2015년 봄호), pp.3-24, 국립국어원.
- 민현식 2010,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 ‘표준 한국어’의 수립을 위하여, “남북 언어 통합과 재외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1-44, 국립국어원.
- 소강춘 2003, 국어 관련 분야의 남북 교류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4, pp.23-68,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신명순·권순희·강보선·양수경·정성훈·정호성·남건우 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 양수경·권순희 2008,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pp.459-483, 국어교육학회.
- 이승재 2002, “남북 언어 순화 자료집 1, - 남과 북이 서로 같게 순화한 용어를 중심으로 -”, 국립국어연구원.
- 이승재 2003, “남북 언어 순화 자료 협의를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조명철 2008, “남북한 무역용어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남호 2009, 북한 언어 자료의 구축,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pp.3-14, 국립국어원.
- 최기호 2008,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립국어원·국어단체연합.
- 한용운 2015, 남과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25-2(2015년 봄호), pp.25-44, 국립국어원.
- 홍윤표·진용옥 1996, “컴퓨터 처리분야 남북한 언어동질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국어정보학회·문화체육부.
- 홍종선·최호철 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 우리말 문화유산의 정비와 통합을 위한 과제 -

발행인 송철의

발행일 2015. 8. 14.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http://www.korean.go.kr>

인쇄 (주)계문사 (02-725-5216)

※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간행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